



문 01. 역대 지방 행정 제도

:: 정답 ①

:: 해설

- ① (O) 통일 신라의 말단 촌제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하고 토착 세력인 촌주가 통치하였다.
 ② (X) 발해의 말단 촌락에는 수령(首領)이라는 토착 세력이 있었다. 국가에서 파견된 수령(守令)이 아니었다.
 ③ (X) 면리제는 조선 시대에 확립되었다.
 ④ (X) 고려의 일이다.

문 02. 서희의 담판

:: 정답 ③

:: 해설

자료의 (갑)은 거란의 소손녕, (을) 서희이다. 서희는 담판으로 강동 6주를 개척했다.

문 03. 광개토 대왕의 왜구 격퇴

:: 정답 ①

:: 해설

자료는 광개토 대왕릉비의 내용으로, 왕 10년(400)에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는 장면을 기록한 것이다. 이로 인해 신라는 고구려의 내정 간섭을 받았다.

문 04. 이승만과 김구

:: 정답 ③

:: 해설

자료의 (가)는 이승만의 ‘정읍 발언’, (나)는 김구가 발표한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글이다.

- ① (X) 5·10 총선거를 지지하였다.
 ② (X) 좌우 합작 위원회에 불참하고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③ (O) 김구는 조소앙, 김원봉, 김규식, 신익희 등과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탁치 반대 국민 총동원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여기에서는 12월 28일에 신탁 통치 반대 성명서 및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④ (X) 김규식이 의장이었다.

문 05. 팔관회

:: 정답 ②

:: 해설

성종이 폐지하고 30년 후 부활한 (가)는 팔관회이다. 자료의 최항은 최언위의 손자이자 현종의 스승이었던 인물로, 무신집권기의 최항과는 다르다.

- ② (X) 팔관회는 개경에서는 중동(仲冬)인 11월 15일에, 서경에서는 10월 15일에 베풀어졌다.



문 06. 정조

:: 정답 ①

:: 해설

자료는 정조의 ‘만천명월주인옹 자서’ 중 일부로, 본인이 만천(萬川)의 주인임을 자처하는 내용이다.

- ① (O) 서호수의 『해동농서』는 정조 때 편찬되었다.
- ② (X) 현종 때 남인에 대한 설명이다.
- ③ (X) 숙종 대의 일이다.
- ④ (X) 설점수세는 1651년 효종 때 은광에, 숙종 때 금광에, 영조 때 동광에 각각 적용되었다.

문 07. 중종

:: 정답 ①

:: 해설

『이륜행실도』는 중종 때 김안국의 건의로, 조선에 의해 편찬된 의례서이다. 주세붕의 백운동 서원은 중종 때 세워진 최초의 서원이다.

- ② (X) 김시습은 생육신의 한 사람으로 15세기 인물이다.
- ③ (X) 성종 때의 일이다.
- ④ (X) 집현전은 고려 시대부터 있던 기구로 세종이 확대 개편하였다.

문 08. 전시 총동원령

:: 정답 ②

:: 해설

자료는 1938년 4월 1일, 일제가 전쟁 수행을 위해 공포한 국가총동원법이다. 이 법은 전쟁 중 인적·물적 수탈을 위한 것으로 이후 다른 각종 수탈 법령 시행의 기초가 되었다.

- ① (O) 일제는 생활 필수품의 생산과 소비 억제를 위해 ‘생활필수품통제령’(1941.4.)과 ‘물자통제령’(1941.12.)을 내렸다. 이로 인해 물자 수탈과 배급제가 확대되었다.
- ② (X) ‘육군특별지원병령’은 이미 1938년 2월에 공포되었다. 말 그대로 ‘17세 이상 제국신민 남자 중 육군 병역에 복무할 것을 지원하는 사람’ 또는 ‘병역을 마친 사람 중 육군부대 편입을 지원하는 사람’ 등을 육군 대신이 현역이나 제1보충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는 법령이다. 즉, 이 법령은 강제 동원이 아닌 지원자를 군에 동원하는 것이므로, 총동원령의 결과물로 보기 어렵다. 법령 제정 날짜에 연연하기 보다는 문제 출제의 의도를 통해 유추하는 것이 좋다.
- ③ (O) 1941년 9월에 공포된, 금속 공출을 위한 법령이다.
- ④ (O) 일제가 노동력 강제 징발을 위해 1939년 7월에 공포되었다.

문 09. 동학 농민 운동

:: 정답 ④

:: 해설

자료의 앞 부분은 안핵사 이용태가 파견된 장면을 묘사하고 있으며, 뒷 부분은 전봉준과 김개남이 전라도 지역을 통솔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용태의 실정으로 농민군의 1차 봉기가 시작되었고, 전주화약 결과 전라도에서 농민들의 자치가 실현되었다. 따라서 (가)에는 1차 봉기 때의 사실인 백산 봉기 장면이 들어갈 수 있다(④).

- ①, ② (X) 2차 봉기 때의 일이다. ③ (X) 서울 복합 상소는 고부 민란 이전의 일이다.



문 10. 토지 조사령

:: 정답 ②

:: 해설

자료는 1912년 8월에 공포된 ‘토지조사령’으로, (가) 기구는 ‘임시토지조사국(장)’이다. 토지 조사 사업은 1918년 11월에 종결되었다.

- ① (X) 조선청년연합회는 1920년에 결성되었다.
- ② (O) 이광수의 ‘무정’은 1917년 매일신보에 연재되었다.
- ③ (X) 연초 전매 제도는 1921년 4월의 ‘조선총독부전매국관제’의 공포와 함께 실시되었다. 다소 생소해 보일 수 있으나 지난해 7급 문제 기출 선지이다.
- ④ (X) 의열단은 1919년에 결성되었다.

문 11.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 정답 ④

:: 해설

태종 때 제작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세계지도의 윤곽은 ‘성교광피도’를 따르고 역대제왕국도 및 성도 부분은 ‘혼일강리도’를 반연한 후, 팔도도로 추정되는 우리나라의 지도를 덧붙여 제작했다. 중화 사상인 반영되어 있으며, 유럽·아프리카 등이 묘사되어 있다. 아랍어 지명이 보이는 점, 바다는 녹색, 하천은 청색, 토지는 백색으로 채색하는 이슬람 계통의 지구의(地球儀) 채색법을 따르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당시 이슬람 지도학의 영향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 ④ (X) 백리척은 영조 때 정상기가 그린 동국지도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문 12. 신문왕

:: 정답 ③

:: 해설

신문왕은 김흠돌의 난을 진압하고 이른바 전제 왕권을 구축하였다. 그 일환으로 유교 교육 강화와 6두품 기용을 위해 국학을 설립하였다.

- ① (X) 소지마립간 대의 일이다.
- ② (X) 효소왕 대의 일이다.
- ④ (X) 녹읍은 신문왕이 폐지하였고 경덕왕 때 부활하였다.

문 13. 발해의 한국사 편입

:: 정답 ②

:: 해설

발해의 문화 유산 중 상경성에서 출토된 거대한 온돌 장치는, 그 나라의 주거 문화가 우리 민족의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국가 제도나 설비 등은 타 문화의 것을 쉽게 채용할 수 있으나, 주거 양식, 묘제 양식 등은 문화적 영속성을 갖는다.

- ① (X) 신라와의 교류 사실만으로 민족성을 거론하기는 어렵다.
- ③ (X) 주자감은 당의 교육 기관을 모방한 것이었다.
- ④ (X) 3성 6부제는 당에서 고안된 중앙 정치 조직이었다.



문 14. 문무왕

:: 정답 ④

:: 해설

문무왕은 무열왕의 뒤를 이어 삼국 통일을 완수하였다.

- ① (O) 무열왕 재위기인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였다. 문무왕은 이때 태자로 참전하였다.
- ② (O) 나당 연합군이 668년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 ③ (O) 복신은 백제 부흥 운동을 주도한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 ④ (X) 문무왕이 663년 주류성을 함락시켜 백제왕 부여 풍은 고구려로 달아나고, 왕자들은 항복하였으나 지수신은 끝까지 임존성에 응거 하며 항복하지 않았다. 이후 다른 성이 모두 함락당하고 부흥 운동을 하다가 당에 항복한 흑치상지 등이 오히려 임존성을 공격해 오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고구려로 달아났다.

문 15. 보안회

:: 정답 ③

:: 해설

일본인 나가모리가 특혜를 얻어 우리나라 황무지를 개간하려 하자, 대한제국 관료들과 상인들이 합자하여 농광 회사를 세웠다. 한국인만 출자할 수 있었으며, 국내 진황지 개간을 목적으로 하였다.

- ① (X) 1900년에 설립된 종로직조사가 대표적이다.
- ② (X) 농광 회사는 토지 약탈을 목적으로 한 국책 회사가 아니었다. 제시된 선택지의 내용과 비슷한 성격의 회사로는 일본이 만든 동양 척식 주식회사(1908)가 있었다.
- ④ (X) 시전 상인들은 외국 상인에 대응하여 황국 중앙 총상회를 조직한 바 있다(1898). 그러나 이는 척식 회사는 아니었다.

문 16. 성리학의 전개

:: 정답 ③

:: 해설

- ㄱ. 기를 중시하고 경장(更張)을 강조한 주기론 학자는 이이였다. 이이(1536~1584)는 선조 때 각종 사회 개혁론을 제시하였다.
 - ㄴ. 무한한 우주의 원기를 인정하는 주기철학을 세우고, 이를 태허(太虛)라 지칭한 인물은 서경덕이다. 서경덕(1489~1546)은 조광조에 의해 현량과에 천거된 적이 있었으나 이후 학문에 전념하였다. 주기론의 선구자로 일컬어지며 이황보다 앞선 시기의 인물이었다.
 - ㄷ. 사단칠정논쟁은 이황과 기대승 사이에 8년간 이어진 대표적 사상 논쟁이었다. 이황(1501~1570)은 명종 때 활약한 인물로, 그와 기대승(1527~1572)의 논쟁은 1559년부터 진행되었다.
 - ㄹ. 향약은 중종 때 활약한 조광조(1482~1519)에 의해 보급되었다.
- 이들 학설을 시기 순서대로 나열하면 조광조-서경덕-이황-이이가 된다.

문 17. 일제 강점기의 생활 모습

:: 정답 ④

:: 해설

- ① 일제 강점기에는 흙 위에 가마니 등으로 움막을 지은 토막집이 유행하였다. ② 1920년대 이후 『별건곤』(1926년 창간) 등의 일종의 대중 취미 잡지가 발간되면서 당시 최신 서구 유행이 빠르게 번졌다. 이 당시 유행한 서양식 복장을 갖춘 도시 젊은이를 ‘모던 걸’, ‘모던 보이’ 등으로 불렸다. ③ 1940년대에 일제는 국민복, 몸빼 등의 간소복을 보급하고 노동력 동원을 강제하였다. ④ (X) 영단 주택은 전시 체제하에서 군수 산업체 노동자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본이 고안하여 보급한 소형 주택이었다. 일본인 관리나 직원은 15~20평 정



도의 집을 분양받았고, 한국인 노동자나 서민은 6~10평 정도 규모의 주택을 임대할 수 있었다. 영단 주택은 일본식 다다미와 온돌이 공존하고, 목조와 시멘트 마감재가 혼용된 대량 공급용 주택이었다.

문 18. 한일협정과 브라운 각서

:: 정답 ③

:: 해설

(가)는 1965년에 체결된 한일 기본 조약 중 ‘청구권·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의 내용이며, (나)는 1966년 베트남 파병과 관련하여 미국과 체결한 브라운 각서의 일부 내용이다. AID 차관은 미국 국제 개발처(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에서 개발 도상국에게 제공하는 차관이다.

① (X) 1970년의 일이다.

② (X) 수출 자유 지역은 공업화 과정에서 부족한 제조업 투자 재원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의 투자 촉진과 고용 증대, 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1970년 제정된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라 경상남도 마산시와 전라북도 익산시(당시 이리시) 2곳에 지정·개발되었다. 마산과 익산 지역에 위치한 수출 자유 지역은 2000년에 생산, 무역, 물류, 유통, 정보처리, 서비스업 등의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자유 무역 지역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③ (O) 울산 정유 공장은 1964년부터 가동되었다.

④ (X) 비료의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1959년 초기 비료 자급 능력 향상과 고용 증대 및 외화 절약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인천 판유리 공장, 문경 시멘트 공장과 함께 국제연합 한국 재건단(UNKRA) 경제 원조를 받았다.

문 19. 고려의 진화(陳渾)

:: 정답 ②

:: 해설

진화는 고려 무신집권기의 문신이었다. 고종 때 여러 신료들에게 부와 시를 짓게 하였는데, 이규보가 수석을 차지하고 진화는 차석이었다고 한다. 자료에서 ‘송은 이미 기울고 북쪽 오랑캐가 아직 잠자고 있다’는 대목을 통해 송이 금에게 밀려난 상황에서 몽골(북쪽 오랑캐)이 아직 내려오기 전의 상황임을 짐작해보는 것이 그나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이다.

① (X)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은 중기의 인물이다.

② (O) ‘동명왕편’의 저자 이규보는 무신집권기의 인물이다.

③ (X) 『제왕운기』의 저자인 이승휴, 『삼국유사』의 저자인 일연은 원 간섭기의 인물이다.

문 20. 해외견문록

:: 정답 ③

:: 해설

『표해록』은 성종 때 최부가 지은 표류기이다. 『열하일기』는 박지원이 정조 때 쓴 연행일기이다. 『서유견문』은 유길준이 미국과 유럽을 돌아보고 쓴 기행문으로, 1895년에 출간되었다. 『해동제국기』는 세종의 명을 받은 신숙주가 성종 때 쓴 일본 및 류큐 일대에 대한 기록이다. 『표해록』이 생소할 수 있으나 나머지 서적으로 순서를 잡는 데 지장은 없다.